

재림 기도인

연합회보 2018 4

Prayer Coalition Newsletter - Issue 129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6)

권두언

듣는 기도

멜 깁슨 감독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전쟁영화 핵소고지(Hacksaw Ridge)는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오키나와 우라소에 마에다고지에서 조국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지 않고 의무병으로 자원 입대하여 75 명의 전우를 살려낸 데스몬드 도스의 기적 같은 활동을 담고 있다. 이 영화 속에는 기억에 남을 만한 두 번의 기도가 나온다.

첫 번째는 고지탈환에 실패하고 후퇴명령이 떨어졌을 때, 병사들 모두가 고지 아래 안전지대로 피신하는데 그가 절벽 위에 혼자 남아 포화를 뒤로하고 드린 기도이다. 지금 이 순간 퇴각하는 병사들과 함께 안전지대로 바로 내려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적의 공격을 받아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부상병에게 되돌아가야 할 것인가, 생존본능과 신념행동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리는 그의 기도이다. 그는 병사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하며 빗발치는 포화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두 번째는 상부에서 재차 고지공격 명령이 내려진 후, 10 분이 지나도록 공격을 하지 못한 이유를 중대장은 도스의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던 그 기도이다. 공격 명령이 떨어진 그날이 그가 소중히 준수해 왔던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소명을 따를 것인가, 안식명령과 생명활동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리는 그의 기도이다. 그는 생명을 살려야 하는 전장을 향해 병사들과 함께 안식일에 고지를 오른다. 이 두 번의 기도가 재림성도로 살아가는 데스몬드 도스의 존재와 행위의 의의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기도에 대한 일화 중, 어느 기자가 마더 테레사 수녀를 만나 “당신은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올리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 질문에 테레사 수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는 듣습니다.” 기자가 의아해 하며 다시 물었다. “그러면 당신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녀의 답은 “그분도 들으십니다.”이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테레사 수녀가 가진 기도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으며 경청의 소중함을 강조한 대화라 여겨진다.

재림성도로 살아가는 기도인연합 형제자매들의 기도에 대한 이해나 습관은 어떨까. 무릎을 꿇을 때나 순간 두 손을 모을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으려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서둘러 자신의 바람대로 세상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거나 내 속의 말을 쏟아내지 않으면

큰 손해라도 보는 듯이 솟구치는 말을 뱉어내기에 바쁘지 않았을지. 더러는 하나님께서 내 속사정을 모르셔서 답답해하며 더 자세하게 자신의 사정을 토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애태우는 말로 계속 강성한 것을 “기도 드렸다”고 여기지는 않았는지.

기도란 단순히 인간의 필요와 도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경험이며, 매 상황과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인도를 기꺼이 따르려는 순종이 전제된 자신의 비움 그 자체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사 1:3)한다며,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신 1:43)였다고 안타까워 하셨다. 더욱이 기도 하면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음에 대하여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잠 28:9)고 강조하실 만큼 듣기를 열망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호소하신 일도 들으라 하였다. 너희를 불러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렘 7:13),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습관이 되었다(렘 22:21) 하셨다. 그렇게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과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시고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렘 25:4) 이스라엘을 결국 이방에 맡기면서까지 사랑으로 이끄셨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성도의 기도는 절실함에 있는가. 절실함에 있다면 그 기도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하는 열망에 가득한 것인가. 그 열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순종에서인가. 이 시대와 사역을 위해 영감의 글은 들음에 대한 호소를 반복하고 있다.

“하나님의 눈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귀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는 가장 깊이 감추어진 우리의 욕망과 소원을 무한히 자비하신 아버지께 쏟아 놓을 수 있다.”(보훈,84)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는 “그리하면 인간의 필요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음성이 영혼의 고요와 침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실 것이다.”(보훈, 84)는 약속에 따라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행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라고 분부하신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세상의 습관이나 행습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생애가 나타나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중에 각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 46:10)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소망, 363)

오직 기도로 삶을 이루어가려는 기도인연합 회원들의 기도도 데스몬드 도스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망으로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소중한 기도들로 이어지며, “나의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는 순종을 전제로 드린 기도로 마칠 수 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날이 되기를 두 손 모은다.

이학봉 / 기도인연합



APC2017, Mt. Hermon, United States

기도인연합 2018년 4월 정기모임 소식

사회: 정동춘 장로님
첫기도: 박무근 장로님 (영남-영양)

간증 및 감사의 말씀 / 연합기도: 기도 회원들

성선제 목사님: 일본 기도인연합회 재조직에 관련하여 일본인 회장단 선출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일본 기도인 연합의 활동을 통해 일본인 선교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엔 여성협회를 중심으로 집회를 갖을 예정에 대한 소식을 주셨으며 5월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163개 교회 전도 집회를 위하여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김만장 장로님: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재림교회 성도들의 활동과 함께 한국인 메달리스트들의 이야기, 두 올림픽을 질서안에서 무사고로 마치도록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게 한 좋은 행사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봉주 장로님: 한국의 평신도 사역들 가운데 소개하신 감람산 기도회는 한국에 거주한 재림성도들이 매주 일요일 아침 5:30 - 6:30 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란다는 말씀과 평신도들의 체계적인 신학공부를 위해 나성 삼육대학 한국지부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과 기초적인 성경공부를 위한 새벽 성서학교등 소개와 함께 기도회원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노귀환 목사님: 대표 연합기도 하셨습니다.

연합기도 제목 및 감사기도:

1. 교회와 성도들이 늦은비 성령을 위해 준비되도록
 - * 교회내 영적 각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 * 미국인 기도인연합 형성에 지도자를 위하여
2. 한반도를 위한 기도
 - * 북한에 하나님의 섭리로 재림기별이 속히 전파되도록
3. 10/40 창의 비 기독교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에 재림기별이 속히 전파되도록
 - * 일본 기도인연합 새 회기 및 활동
 - * 2018년 5월 일본 163 교회 참가하는 일본 대전도회
 - * 오아시스 세계 선교 방글라데시 기도주일 부흥회/ 염소선교 운동
4. 지역 교회 기관 단체를 위한 기도
 - * 한국평신도 단체 활동을 위하여
 - * 한 지만군의 4월 18일 법정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 * 모든 연합기도 제목들은 또한 개인기도 하실때 기도 제목에 포함하여 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참여자들의 구름기도가 끝난후 안천수 목사님 (빅토빌) 의 끝 기도로 4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최석근 장로님 말씀 봉독: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1-33)

(글: 류복레)



APC2017, Mt. Hermon, United States

5월 연합기도회 기도 요청

일본 연합회: 2018 마라나타 특별 전도기획

일본 연합회는 2018 마라나타 특별 전도기획으로 5월 한달 동안 전국 163개 교회가 참가하여 10회 이상 전도회집회를 기지는 성회를 가지게 된다
대총회장 테드윌슨 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강사가 말씀을 전하며 동경 한국인교회는 홍명관 목사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중보 기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연합회 보고에 의하면 교단 통신학교에 성경연구 희망자가 쇠도하여 직원이 그 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 성령의

도움심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일본선교에 새로운 가능성과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를 위한 기도

- 북한에 자유와 인권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 북한에 하나님의 섭리로 재림기별이 속히 전파되도록
- 한국내 종교 자유 활동
 - o 재림청년 군입대 및 의대생 토요일 시험 날짜 변경 등 안식일 문제가 해결되도록
 - o 재림 청년들의 굳건한 믿음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늦은비 성령을 위해 준비되도록

2018 북미주 미국인 기도인연합 결성을 위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자원봉사 활동보고

김만장 / 서울남부교회 - 2017 평창동계올림픽 삼육지역봉사회 자원봉사자 단장

지난 2월 기도모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번 한국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정부 보건복지부에 NGO 단체로 등록된 서중한합회 산하의 “삼육지역사회봉사회”와 올림픽조직위원회 간에 단체 자원봉사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2017년 4월 14일부로 체결했습니다. 또한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삼육지역사회봉사회가 주관하여 2017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10시간의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한진관광을 포함 5개 단체 230명이 대방재림교회에서 실시했습니다.

조직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145개국에서 9만 7천여명이 자원봉사 신청을 했고 그중 63개국을 선별해서 17,400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해야 하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인 2월 7일과 8일 이틀간의 현장 직무교육을 마친후 42명의 교인들이 자원봉사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들중 8명이 개인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대신해서 불가피하게 교인이 아닌 개인 구도자로 대체해야하는 다급함도 있었습니다.

올림픽 기간인 2월 5일부터 25일까지 24일간 24명이, 패럴림픽 기간인 3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18명이, 설상경기장 3곳과 빙상경기장 4곳에서 선수촌 안내 및 통역, 미디어센터 지원, 출입 보안검사, 차량 안내, 입장권 검사, 관중 동선안내, 게이트 안내, 좌석 안내, 유실물 보관 업무, 출퇴근 체크관리, 도핑테스트 관리업무, 응급환자

후송업무, 휠체어 및 유모차 담당 등 17개 분야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과 강릉지역은 유심히 추울뿐 아니라 바람도 강해서 대회 기간, 설상 경기중 하나인 알파인 스키 여자 회전 경기와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경기등 몇몇 게임이 악천후로 연기되어 관계자들을 가슴 조리게 했습니다.

더욱 피곤하게 한 것은 근무하는 경기장은 강릉 올림픽파크인데 잠자는 숙소는 속초이어서 한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장거리입니다. 경기가 늦게 끝나는 날에는 숙소로 도착하면 자정이 넘는 경우가 허다했고 오전 일찍 경기가 있는 날에는 새벽 4 시반에 숙소를 나와야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희 삼육지역사회봉사회 소속 자원봉사자 중 올림픽때는 11명, 패럴림픽때는 14명이 강릉 컬링경기장에서 봉사를 했는데 대다수 60세 이상된 여성분들이 많아서 날씨로 인한 걱정이 됐지만 주로 실내에서 하는 업무를 맡게 돼서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 양일권 목사님 힐링센터가 있고 차로 한 15분 거리에 속초중앙교회가 있어 차량까지 보내 줘서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가서 예배를 드렸고 또 어떤 때는 숙소의 한 방에 모여 예배를 보기도 했으며 고정 휴무일 외에 한 2회 정도는 자기가 필요한 날 휴무를 요청하면 배려가 되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날씨가 춥고 바람 또한 강풍이니 실외에서 하는 봉사는 모두가 꺼리는데 우리 봉사회 소속 봉사자 몇분은 자원해서 실외 근무를 전담 했습니다. 또 약 100m가 되는 휠체어 전용 비탈진 통로에 장애인 휠체어 밀어주는 봉사를 자원 했고 운영위원들 휴게실 청소를 출신수범해서 작은 일상에서나마 TMI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대회기간중 합회와 삼육지역사회봉사회에서 임원들이 오셔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겐 부실할 수 밖에 없는 식사 문제로 조금은 지친 봉사자들에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식단으로 한끼나마 든든하게 해 줬고 따뜻한 선물까지 8명의 구도자들에게 전달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몇 종목의 경기에서 모두의 관심을 일으켰던 일화를 간단히 소개 하겠습니다.

평창에서 유독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던 종목은 민유라와 알렉산더 껀린이 출전한 아이스댄스였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두 사람은 평창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국적을 바꿨습니다. 껀린은 훈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털었고 민유라는 강아지 시터 일을 하면서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어렵게 평창올림픽에 출전한 민유라-껀린은 프리 댄스에서 ‘홀로 아리랑’ 선율에 맞춰 아름다운 연기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인이 사랑하고 우리네 정서가 녹아 있는 곡이라 꼭 사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받은 최종 점수는 147.74 점, 종합 18위 우리나라 아이스댄스 선수가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이래 가장 높은 성적을 남겼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의 경기가 열릴 때면 관중들은 일제히 ‘영미~’를 외쳤습니다. 영미는 여자 컬링 대표팀의 리드 김영미 선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김은정 스킵이 김영미에게 스윙 방향과 속도를 지시하면서 ‘영미’를 워낙 많이 불러 전 국민이 다 아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컬링팀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영미~’ 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1 위 캐나다를 시작으로 미국, 러시아 OAR 팀, 덴마크 등 컬링 강호를 차례로 쓰러트렸습니다. 컬링팀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특유의 팀워크 때문입니다. 컬링 선수들은 모두 경북 의성에서 나고 자라 대표팀 이전에도 서로가 자매이자 친구 관계입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라 팀워크는 그 어느 팀에 견주어도 뒤지 지 않았던 것입니다.

2월 10일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결승에 출전한 임효준이 올림픽 신기록 2분 10초 485를 기록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했습니다. 남자 쇼트트랙에서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이후 8년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쥔 순간이었습니다. 정강이 뼈 골절, 발목 골절, 인대 부상, 손목 골절 등 술하게 입은 부상 때문에 무려 7차례나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 정도면 운동을 포기할 법도 한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쇼트트랙 선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부상과 시련을 모두 이겨내고 마침내 올림픽 챔피언이 된 임효준 선수 그의 투혼 앞엔 시련이란 결코 시련이 될 수 없다는 오르지 인간만이 줄 수 있는 감동을 모두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올림픽을 2주 앞둔 시점에서 구성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코리아는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했음에도 빠른 속도로 하나의 팀을 이뤘습니다. 5전 전패에 2득점, 28실점을 기록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 팀웍을 갖춰 세계적인 선수들과 대등한 경기를 펼친 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었고 그들의 투혼은 뜨거운 박수를 받기에 충분 했습니다.

이외에도 비록 메달권 진입은 하지 못했지만 메달을 딴 선수들 못지않는 투혼으로 화제가 된 선수도 있습니다. 남자 아이스하키팀 오현호는 캐나다전에서 상대 스틱에 얼굴을 맞아 앞니 세 개가 나갔습니다. 오현호는 빙판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다음 경기인 핀란드전에 출전했습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에 이어서 치러진 패럴림픽에서 한가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비장애인도 패럴림픽에 참가하여 메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 장애인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의 이야기입니다.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는 사실상 혼자 레이스를 펼치는 것이 어렵기에 가이드 러너의 도움을 받습니다. 때문에 가이드 러너는 대부분 스키 선수 출신이며 또 시각장애인 선수가 메달을 획득할 경우

가이드 러너에게도 메달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의 호흡과 신뢰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장애인인 가이드 러너가 먼저 앞에 가면서 보내는 청각신호를 시각장애인 선수의 헬멧에 달린 수신기로 받아서 순전히 감각에 의해 눈위 슬로프를 질주합니다. 장애인 선수의 용기와 도전도 대단하지만 비장애인인 가이드의 헌신과 배려가 필수적인 경기인 것입니다 해서 시상대에는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가이드 러너가 함께 오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선수와 그의 눈이 되는 가이드 러너 또 그러한 가이드 러너를 믿고 눈위를 달리는 선수....! 진정 패럴림픽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금번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중 비록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조직위 요청에 의해 휴무일을 이용 3회에 걸쳐 캐나다, 노르웨이, 스페인, 핀란드 단장과 임원들 8명을 숙소에 가서

발마사지 봉사를 했습니다. 그중 캐나다 단장은 부인까지 부탁을 해서 꽤히 승낙을 했더니 그 이튿날 컬링경기장으로 두 딸과 함께 온 식구가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받았고 또한 그의 요청에 의해 캐나다 더스타 라는 TV와 한 10분 인터뷰를 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스페인 임원인 하비에르씨는 올림픽이 끝나고 업무차 수일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에 머무르면서 연락을 해 왔습니다.

3월 28일이면 마드리드로 출국하는데 시간이 된다면 발마사지를 한번 더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때 우리 봉사회 소속으로 선수촌에 발령받아 통역봉사를 한 김동현 형제와 함께 3월 27일 코리아나 호텔에 가서 마사지를 해 주고 ‘생애의 빛’ 한권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서중환합회에 문의하여 스페인 연합회 주소와 연락처를 받아 건네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곳에 문의 하면 잘 대답해 줄 것이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출국후 두 번이나 메일을 주고 받았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자원봉사자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낙연 총리, 문체부 장관, 안행부 차관, 조직위원장 등과 함께 가깝게 앉게 되어 올림픽 기간중 삼육지역사회봉사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숭선수범으로 최선을 다한 활동상을 얘기하며 홍보를 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여자컬링대표팀 선수들이 있어 자리를 옮겨 함께 앉아 컬링경기장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이야기를 하고 요청 한다면 올림픽 영웅들의 고향 경북 의성에 가서 부모님들은 물론 고향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발마사지 봉사를 해 드리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선수들은 물론 매니저가 큰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했고 마침 준비해간 리플렛이 있어 전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인연을 복음을 전하는 디딤돌로 사용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큰 행사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 처한 한반도에서 작은 하나의 안전사고도 없이 어느

외신의 논평대로 사고가 없는 것이 사고라고 할 정도로 무사히 치를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한편 제 자신에게 되 물게 되는 것은 “없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고군분투 하는데 영원한 상급을 바라는 우리들의 삶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는 자각입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 김만장 (서울남부교회 장로)
 2017 평창동계올림픽 삼육지역봉사회 자원봉사자 단장
 발관리 지도자 (Footcare Manager)
 족부클리닉 전문강사



APC2017, Mt. Hermon, United States

6 하원칙(5W1H)으로 풀어 쓴 세 천사의 기별

손경상 / 기도인연합

‘남은 자손의 정체성’ 편 - 언제 WHEN?

1.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시기는 언제인가?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시기는 언제일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시대도 아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시대도 아니고 제자들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한 사도 시대도 아니다.

목숨을 걸고 교황권의 불의에 맞선 종교개혁의 시대도 아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종결될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이다.

어떤 기별이기에 그리고 왜 선악의 대쟁투의 긴 역사가운데 오직 마지막 시대에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일까? 기별奇別, message 이라 함은 그 시대에 필요한 소식 곧 복음福音이다. 왜 필요할까? 왜 전해야 하는가?

그것은 마지막 시대가 풀기 힘든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 문제로 인해 온 세상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불행할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2. 역사상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불행’의 문제와 마지막 시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딤후 3:1~5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 고통과 불행이 발생한다. 기별은 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기별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 시대가 안고 있는 고통과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줄 최고의 방법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제시된다면 세 천사의 기별은 행복의 소식 복음으로 온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의 모든 사람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불행의 문제는 무엇일까? 지구 역사의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가 종결되는 이 시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알고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서는 해결의 방법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대에 고통과 불행을 야기시킨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서의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8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 장 6~12 절

언제 WHEN ?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불행의 문제를 안고 있는 시대, 세 천사의 기별이 반드시 전해져야 할 시대는 ‘선악의 대쟁투’가 종결될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이다. 이 사실은 동시에 그 시대가 세 천사의 기별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역사상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불행의 문제로 고통 받는 때이기 때문이다.

어디서 WHERE?

1. 세 천사의 기별은 어느 곳에 / 어느 곳에서 전해져야 하는가?

세 천사의 기별은 어디에서 전해져야 할 기별인가? 이것은 “누가 세 천사의 기별을 필요로 하는가?”와 동일한 질문이다.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져야 할 공간적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계 14:6 에게 전할 기별이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온 세상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다시 말해 온 세상에 셋째 천사의 구원하는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교회증언 6 권, 31 라는 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온 세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시대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곧 온 세상이 어떤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현시대가 요청하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기별이다. 또한 세 천사의 기별이 해결할 문제는 어떤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이어서 기별의 힘이 전 세계적으로 미칠 만큼 크고 힘이 세어야 하며 그 문제의 해결 또한 부분적이지 않고 완전해야 한다.

세 천사의 기별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곧 ‘온 세상’에 전할 기별이다.

2. 세 천사의 기별은 사상이다

도대체 어떤 문제이기에 또한 문제의 성격이 어떻기에 전 세계를 일시에 문제에 빠뜨릴 수 있을까? 그 문제의 해결

또한 어떤 힘을 지녔기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문제의 성격이 사상 思想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상은 빠른 전염성을 지니고 있다. 사상은 단기간에 엄청난 영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한 힘과 전염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상이 문제가 될 경우에 많은 사람이 일시에 풀지 못할 불행의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 잘못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불행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소식, 곧 복음을 고대하게 된다. 결국 사상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의 해결 또한 사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은 사상적 성격을 띤 기별이다. 세 천사의 기별이 지닌 사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시대에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불행의 문제를 야기시킨 사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규명하여야 한다. 그래야 해결책으로서의 세 천사의 기별의 사상적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사상이 야기시킨 전 세계적인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기별로 사상적 기별이다.

3. 전 세계적인 불행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상은?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대쟁투 역사의 마지막 시대는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품어 온 자신의 사상으로 이 세계를 점령할 때임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였다. 그러므로 불행의 문제를 야기시킨 사상의 정체는 바로 사탄의 ‘악’ 사상이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서 있더라.”계 12:17

용 곧 사탄이 바다 모래로 표현된 온 세상 모든 백성을 밟고 위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상적 수단밖에 없다.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사상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을 자신의 사상체제로 밟고 서 있는 용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현시대가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져야 할 마지막 시대인가? 현시대는 과거 전 지구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이전 시대에 찾아볼 수 없을 만한 강력한 사탄의 악 사상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시대가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임이 분명해진다. 이 시대의 사상은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늘에서 대쟁투를 시작한 사탄의 사상 곧 그의 작품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과 형태의 사상인가? 사탄이 그의 사상으로 온 세상을 밟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과연 그 사상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고 어떤 불행의 문제를 가져왔기에 온 세상은 세 천사의 기별이 필요한 것일까?

진화 사상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사상, 이 시대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의 사고방식을 주관하고 있는 사상은 명백히 진화進化 사상思想이다. 이 사상은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극히 짧은 시간에 온 세상 사람들의 사고를 점령하였다.

“역사적 시기마다 각기 다른 일련의 사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상들을 ‘시대사조’라 부른다. 갑작스러운 ‘시대사조’의 출현을 혁명이라 하는데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지식사회의 대변혁 가운데 <종의 기원>이 출판된 1859년 이후 서구 세계 지식인들의 세계관은 불가피하게 1859년 이전 세계관과는 너무 많이 달라졌다. 다윈에 의해 야기된 지적 혁명은 생물학 영역을 넘어,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일부까지도 뒤집어 버렸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1859년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윈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화 사상이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었는가? 사탄은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자신의 사상으로 제어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사상이 지닌 감염력 때문이다. 감염력으로 인해 한 명의 사상이 주위 사람들의 생각을 감염시킬 수 있었다. 사상이 강할 경우 그 힘은 넓게 퍼져 나갈 수 있고 심지어 전 세계를 감염시키기까지 한다. 이것이 바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 곧 시대사조時代思潮이다.

시대사조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주관하는 데 그 이유는 그 시대의 사상이 바로 그 시대가 추구하는 모든 학문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 시기에 진화 사상을 밑바탕으로 쓰여진 책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결국 진화 사상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는 진리가 기록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의심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진화 사상이 우리의 사고체계에 들어오게 된다.

많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진화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만 진화론이라고 생각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 사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학문에 스며들어 있어서 사상이 바탕을 이룬 학문을 학습하면 그 사상에 자신도 모르게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그 사상이 목적인 바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상은 한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방식을 구성하게 된다.

개인들이 사상을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행동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상이 자신들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사상은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제시하며,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불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길 또한 명확히 제시한다. 진화 사상이 힘이 있고 매우

짧은 시간에 온 세상 사람들의 사상으로 자리 잡을 만큼 그 전염력이 강한 이유는 인간을 강력하게 주관하고 있는 이기적 본성과 진화 사상이 추구하는 행복의 방향성이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적자생존適者生存 곧 자신의 생존을 최고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진화 사상은 이기적인 인간에게 너무도 설득력 있어 쉽게 받아들여진다.

진화 사상이 이렇듯 죄의 본성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죄의 창시자와 진화 사상의 창시자가 동일하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하늘에서 사탄이 주장한 행복의 방법 곧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 정신은 진화 사상의 핵심 정신이다. 루시퍼의 이런 정신이 결국 우주에 불행의 씨를 심었다면 진화 사

상도 그것을 받아들인 온 세상에 불행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사실은 매우 자명하다. 진화 사상이 언뜻 보기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상이 죄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하여 다른 많은 사람의 불행을 자초하고서라도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다. 그런데 진화 사상이 이런 이기적 정신을 더욱 체계적으로 행복의 목적과 그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이기성에 불을 더욱 크게 지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불행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진화 사상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사상의 뿌리가 결국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대쟁투를 일으킨 루시퍼의 사상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쟁투를 일으킨 루시퍼의 사상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 시대를 점령한 진화 사상의 정체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문제는 제2권 안식일편 118~142 쪽 특히 ‘남은 자손의 탄생과 진화론, 진화 사상의 출현’에서 자세하고 명확하게 살펴볼 것이다.

한편, 우리가 사상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상이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강한 사상일수록 그 힘이 강해서 강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문제가 있는 사상이라면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것도 결국 빈 라덴 Osama Bin Laden 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곧 사상의 힘 때문이었다. 잘못된 사상은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린다.

선악의 대쟁투도 사상의 싸움이다. 루시퍼가 품었던 악 사상은 그 힘이 강해서 하늘 천사 1/3의 사상을 감염시키고 결국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사상까지도 감염시켰다. 그 결과로 인류는 긴 역사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하늘에서 품었던 루시퍼의 사상은 시간이 갈수록 그 힘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가 종결될 이 시대에 루시퍼의 사상은 역사상 가장 큰 힘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감염시킨 진화 사상이다. 지금 시대는 루시퍼 큰 용가 자신의 사상으로 전 세계 백성들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을 감염시킨 시대이다. 우리는 루시퍼가 지닌 사상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파악해야 한다. 대쟁투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선악의 대쟁투 문제에 대하여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현시대에 온 세상을 점령한 사상은 진화 사상으로 그 뿌리는 하늘에서 대쟁투를 일으킨 루시퍼의 악(惡) 사상(思想)이다.



APC2017, Mt. Hermon, United States

2017 국제림기도인연합성회 기념 출판 영의 세계와 그 투쟁

김명호 / 기도인연합

기독교에 영혼불멸설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스위스의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1956년에 <영혼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 : 신약 성경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짧은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기독교계를 발칵 뒤집었다. 쿨만 교수는 신약성경은 영혼불멸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했기 때문이다. 그는 부활의 개념과 영혼불멸의 개념은 양립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신약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 편에 반듯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후에 그는 "내 저서 중 그처럼 큰 환호와 격렬한 증오심을 일으킨 책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를 기독교

신학자가 부인했으니 교계가 경악했을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쿨만은 이 사상이 헬라 사상으로부터 기독교로 들어왔다고 주장하였다. 원래 히브리 사상이나 신약성경에는 영혼불멸 사상이 없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영혼이 불멸하는 것 같은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이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비판하는 말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신 일이 없다. 오히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분명히 계시해주셨다. 그런데 이 사상이 마치 성경의 사상처럼 기독교가 중요 교리로 믿고 있게 된 것은 왜 일까?

에덴동산에서부터 영혼불멸 사상을 주창(主唱)한 루시퍼가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스스로 세상 신으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하여 부하 천사들을 통해 부지런히 일하고 사람들에게 모르는 세계를 속여서 믿게 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보편화되었지만,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계기로 철저히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

사도행전은 예수부활 증거 행전이다. 사도행전에는 십자가에 대한 것이 두어 번 기록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열 번 이상 기록되었다. 그만큼 부활을 강조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울은 부활을 '죽은 자의 소망'(행 23:6)이라고 분명히 선포했다. 죽은 자가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한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소망이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언제부터가 부활보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소망으로 가르치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고대 세계는 그만 두고 기독교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후에 영혼불멸사상이 교회에 들어온 경위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어떤 말에 의하면 인도가 영혼불멸 사상이 가장 강한 나라요 민족이라고 한다. 이런 사상이 헬라로 전파되고 헬라 신화와 어울려 디오니소스 교와 오르페우스교가 영혼불멸사상을 믿어서 술에 취한 상태와 예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혼의 활동이 드러나는 것으로 신봉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사상은 철학자 피타고라스에 의하여 헬라 철학자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마침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통하여 체계화 되면서 소위 이데아의 세계가 영혼의 세계로 인식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상은 신플라톤주의로 발전하면서 더 강하게 발전했다.

150 년대에 저스틴 말터(Justin Martyr), 위키백과에 있는 그에 대한 설명을 보면 【유스티누스(Justinus), 유스티노 순교자(Justin Martyr, 서력 100 년~165 년

경)는 초기 기독교 변증가로서 2 세기 로고스 이론의 최초의 해석가로 간주된다. 그의 작품들 다수가 분실되었으나 두 개의 변증문서와 대화문 하나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는 가톨릭 교회, 성공회, 동방 정교회에서 성인으로 간주된다.

마리아의 프라비아네아폴리스에서 그리스인 또는 로마인 양친 사이에서 태어났다. 진리탐구의 철학적 편력자로서 스토아 학파, 페리파토스 학파, 피타고라스 학파 등을 편력하면서 교사를 찾아보았으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최후로 플라톤주의에 진리가 있다고 믿고 플라톤이 가르치는 이데아의 관상(觀想)에 의해 하느님 보기를 원하고 명상생활에 들어섰다. 이 무렵 그리스도교도인 한 노인을 만나 인간이 신을 알기 위해서는 명상적 생활에 있어서의 이성적인 탐구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신으로부터 계시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고 이 노인의 증언에 의해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을 주목하고 여기서 신의 계시를 보았다.

그는 그리스 철학에 정통했으므로, 이 그리스적 교양에 의해 그리스도교 진리에 학문적 기초를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므로 회심 후에도 철학자로서 처신하며 로마에서 그리스도교 철학을 가르쳤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는 '참된, 최고의 철학'이었다. 그의 그리스도교는 행위를 중시하는 윤리 종교적 색채가 강하고,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다. 최초의 협의의 신학자라고 간주된다. 전체적으로 교회의 전통에 충실했으며, 그 진리를 위해 로마에서 순교하였다.】

그런데 이 저스틴은 위에 인용한 글대로 헬라 철학자였다. 그는 신플라톤 사상을 성경에서 완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신플라톤 사상은 물질세계를 경멸하였다. 이유는 물질적이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세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었다.(딤후 4:4) 인간이 사망의 존재가 되자 그들이 그런 상태로 수명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주께서는 원래 창조한 상태를 변질시키셨다. 그래서 오늘날 물질계가 저질이 된 것일 수는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영경귀를 낼 것이라고 하셨는데(창 3:17,18) 이 말씀이 사망이 된 인간이 그 수명을 누리는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물질세계를 변질시킨다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말씀이다. 필자는 그렇게 깨닫고 있다.

플라톤을 포함하여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육체는 생성하고 변화하는 이 세계에 속한 것이고, 영혼은 존재의 세계에서 나오는 신의 광채이며 이성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로고스가 우주 안에 거하며 우주를 다스리는 것처럼, 축소된 로고스인 영혼이 육체 안에 거하여 육체를 다스린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인간은 영혼이고 육체는 이 인간이 거주하는 집이나 옷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육체를 영혼의 무덤이나 감옥으로 여겼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으면 소크라테스의 이런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의 사상은 불멸하는 영혼의 궁극적 운명은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죽음을 영혼이 해방되는 순간으로 보았고 해방된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참으로 평화를 누린다고 보았다.

저스틴은 이런 플라톤주의의 이원론적 사상을 기독교로 가지고 들어왔다. 신학자들은 저스틴의 글들이 그 시대나 좀 후시대의 다른 변증가들의 글보다 수준이 아주 높다고 말한다. 그러니 교회 안에 영향을 컸을 것이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유산과 기독교 신앙을 연관시켜 설명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헬라 용어로 표현하되 왜곡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헬라 사상은 기독교 사상으로 전환되었고 성경적 기독교에 부합하지 않은 요소들은 대부분 제거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이 과정이 한 방향으로만 되었겠는가? 헬라사상만 변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시 헬라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에 적합하지 않은 헬라사상의 요소들이 살아남아 영향을 미쳤다.

위의 글은 홍성사에서 2008 년에 출판한 토니 레인 저, 박도웅 양정호 옮긴 기독교 인물 사상사전, 24,25 쪽에 있는 내용을 필자가 문장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지만 옮긴 것이다.

이런 과정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바로 저스틴 말터이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를 거쳐 플라톤에게 이어진 인간 이원론 구조 사상을 기독교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이데아 세계라는 것을 천국으로 고치고 그들의 로고스 사상을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 신앙으로 고쳐서 가르친 것이다. 영혼불멸설은 이렇게 기독교를 점령하였다. 참으로 기이하게도 사도들 외에 교부들 중에는 유대인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헬라인이 아니면 로마인이었다. 그들이 사는 나라의 사상과 문화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는가.

이것은 중세에 기독교에 강하게 스며들었다. 저스틴 말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 이레니우스와 오리겐 같은 당대 석학 신학자 교부들이었다. 그들을 통하여 영혼불멸사상은 기독교 교리의 한가운데 자리를 잡은 것이다.

사단은 이렇게 교회에 자기의 보좌를 놓았다. 하늘의 집회의 산에 자기 보좌를 놓는 일에 실패한 그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자기보좌를 놓는데 성공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예언했다.

[살후 2:3,4]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루시퍼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 그는 집회의 산에 자기 보좌를 놓는 일에 절반 성공을 한 셈이다. 교회는 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마치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붙들고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쿨만의 주장을 비성경적 주장이라고 치부한다. 참으로 기묘한 현상이 아닌가? 루시퍼의 마취제에 단단히 마취가 된 것이다.

교회는 소위 퇴마사를 두고 있다. 퇴마사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장소에 귀신이 붙는데 그것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퇴마사의 정식 명칭은 구마(驅魔) 사제(司祭)이다.

이들이 말하는 귀신이 죽은 자의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하는지는 필자는 모른다. 그러나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야료(惹鬧)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실에 근거를 두고 설명할 것이다. 예수께서 쫓아낸 귀신은 악령들 곧 타락한 천사들인 루시퍼의 부하들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대부분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혼령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곳을 하면 시어머니 귀신, 며느리 귀신, 아기 귀신 등등. 여러 귀신이 나오는데 무당을 통하여 그들이 말할 때에는 살아있을 때 그들의 음성으로 들리게 한다고 필자가 들었다.

희한한 것은 이런 귀신들이 귀신 붙은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 귀신들은 대부분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귀신인데 왜 가족을 그렇게 해롭게 하는 것만 하는가? 희한한 일이 아닌가? 생전에 무슨 그리 원한이 많아서 그렇게 사람을 못살게 구는지? 그렇더라도 가족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할 수 없겠는가?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귀신이 집혀서 잘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일이 없는 것 같다. 그 집안에서 죽은 사람의 혼령이 산 귀신이 되었다면 집안을 잘 되게 해주면 무엇이 나쁜가? 귀신은 해롭게 하는 존재로만 나타나는 것 같다.

선한 귀신은 없는가? 선하면 귀신이라고 하지도 않겠지. 그것은 신선이나 선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도 모를 일이다. 이런 사람들은 생전에 선업(善業)을 쌓았기 때문에 신선이나 선녀가 되어서 산 사람에게 집히는 것이 아니고 그들대로 행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좋은 것을 지시하고 해결해준다고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악업(惡業)을 쌓은 사람들이 귀신이 되어 산 사람들에게 붙어서, 또는 집혀서 그 산 사람을 통하여 귀신의 생전에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고

싫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개신교 목사들 중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아주 독특한 귀신론을 마치 신학의 한 분야처럼 주장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모든 것은 속임수이다. 도덕론적 신앙관과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에 속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원칙을 알 것이고 이런 일에 속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루시퍼와 그 부하 천사들의 농간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욥 14:20,21) 이 말씀에 얼굴빛을 변하게 한다는 말은 죽은 사람의 얼굴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고 쫓아 보낸다는 말은 죽은 것을 뜻하는 표현이다. 이런 사람은 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아들이 아니다. ‘비오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도 전혀 모른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산 영혼이 귀신이 되어 사람에게 집힌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다 속임수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한 루시퍼의 기막힌 속임수이다.

교회 안에서 퇴마사 활동을 하는데 교회 밖의 세계에서는 오죽 하겠는가?

루시퍼는 이렇게 종교와 미신을 통하여 사후 세계 문제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결코 아니다. 루시퍼와 그의 부하 천사들이다. 그들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감시한다. 개인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그들은 마치 죽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영혼인양 활동하며 세상과 사람을 속인다. 이런 일은 역사의 종말에 이를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한다.(마 24:24)

성경은 죽은 자의 살아있는 영혼이 없고 범죄하면 그 영혼이 죽는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이 성경 구절들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속임수에 속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여 더욱 그럴듯하게 속인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사람을 따르며 속고 있다. 이적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은 당장 자기의 필요 때문이라고 이해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들의 이기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떠난다. 신앙은 그런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옛날 같은 우상을 만들어놓고 숭배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마음에 이기심이라는 우상을

좀처럼 버리지 못하고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밥이 되기 꼭 좋은 자리에서 있는 것이다.

제 6 장 성경이 가르치는 죽은 자의 실상

이미 앞 장들에서 말했지만 교회 내에 루시퍼가 자기의 보좌를 놓고 앉았으니 교회의 교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앞 장에서 말한 대로 헬라사상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비슷한 단어들과 연결해서 헬라 식으로 해석하면서 교리가 헬라사상으로 조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영혼불멸설은 교회에 자리를 잡았다.

카톨릭을 위시해서 대부분의 개신교가 영혼불멸설을 교리로 가르친다. 그들은 부고를 낼 때 소천 했다고 적는다. 소천(召天)이라는 말은 하늘이 불러서 하늘로 갔다는 뜻이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하늘,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갔다고 믿는 것이다.

필자는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재림교인에게 성경을 배울 때 영혼불멸설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처음에는 놀랐으나 곧 성경적으로 깨닫게 되어 기뻐했는데, 그때까지도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시내 교회에서 안식교 비판 집회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교회 청년과 함께 거기 가는 길에 재림교회의 내세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갔다. 그때 영혼불멸설과 영원지옥 설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전도사님 동생이었던 그 청년이 내게 말하기를 “김 선생, 그러면 뭇 하러 예수를 믿어요?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지. 예수를 믿는 것은 지옥 가지 않기 위하여 믿는 것 아니요?”

“아니, 이 선생, 천국가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렵지요.”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 것 같다.

한 번은 장로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재림교인과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인이 남편을 필자에게 보내어 성경공부를 시키도록 했다. 한 삼일 집에 머물면서 공부를 하는데 영혼불멸설과 영원지옥 설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진리를 가르치자, 그가 나를 보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안식교가 왜 부흥하지 않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지옥이 없으니까 부흥하지 않지요. 저부터도 죽어서 지옥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겁이 나서 예수를 믿는데 지옥이 없다고 하니까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지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

필자가 장로교 다닐 때 지옥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을 해본 기억이 없다. 죽어서 영혼이 천당을 간다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말은 필자를 놀라게 했다. 그들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으로 교회에 다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들을 일일이 붙들고 물어볼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그런 정신이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성경은 결코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사람은 죽으면 예수께서 깨우는 그때까지 의식 없이 그가 죽어 장사된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다. 사후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살펴보자.

1.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

[겔 18:4]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라는 말이 ‘네페쉬’이다. 생명이라고 많이 번역된 단어이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존재가 되었다.

[롬 5:12] 이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 이 말은 아담의 후손 한 사람씩 개인이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죄를 지은 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 세상이 정죄된 죄는 한 범죄이다.

[롬 5: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는데,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한 번역은 오역이다. ‘많은’이 아니고 ‘모든’이다. 헬라어로는 ‘파스’이다. ‘파스’는 ‘모두, 모든’이라는 뜻이다. ‘많은’은 ‘폴뤼스’이다.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그의 모든 후손이 죄를 지은 존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정죄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죄는 개인적으로 짓는 도덕적 죄가 아니다. 이죄는 존재와 생명에 관한 죄이다. 이마 저 앞 어느 장에서 말한 대로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출생한다. 말로하자면 태어나면서부터 사형수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범죄한 영혼들이라는 뜻이고 그들은 예외 없이 그 영혼이 죽는다는 말이다. 영혼이라고

번역한 말이 '네페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곧 '비오스'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영혼불멸설은 틀린 것이다.

예외가 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조에'를 얻은 사람들은 영생하는데 몸이 죽고 그 영혼이 살아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여 전인격체가 영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영혼은 영생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른 말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생한다는 말이 아니다. 부활하여 영생한다는 말이고 범죄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 전체가 영원히 죽는 다는 말이다.

[롬 3:10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 14:3]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왕상 8:46]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매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이 모든 말씀은 사람은 다 범죄한 자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사람으로서는 죽지 않을 영혼은 하나도 없다.

영혼이라는 말이 사람 자체를 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오해 없이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죽일 때 피를 흘려 죽인다고 표현해 주셨다.

[겔 22:27]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영혼이라는 말은 '네페쉬'이다. 몸을 떠난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교리는 전적으로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교리이다. 영혼이 죽는 다고 했고 영혼은 피를 흘리며 죽는다고 했다.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사람 자체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오해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한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시 14:1,3) 오직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외에는 죽지 않을 영혼이 없다. 이 사람들도 일단 '비오스' 살다가 죽지만, 그것은 주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영혼이라는 말로 바꾸면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한다.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존재로 사는 것이다.

2.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전 9:5]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있어버린 바 됨이라.

[요 14:20,21]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21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죽은 몸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영혼은 의식이 있고 지각이 있어서 상황을 안다는 것은 성경과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만일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 38:18,19] 음부가 주께 사례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19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요 14:10]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는노.

[시 6:5]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시 30:9]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시 115:17]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이 말씀들은 한결같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가르쳐준다. 죽은 자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영혼이라는 말이 사람 자체를 뜻하는 말인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죽은 자의 귀신 노릇하는 것을 죽은 자의 혼령이 살아있어서 귀신이 되어 사람에게 덮치고 신 내림을 하여 사람이 무당이 되고 접신 자가 되는 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사단의 속임수이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기 전에 살던 자기 집으로 갈 수도 없다. 당연히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화장이면 화장으로, 매장이면 매장으로 수장으로 그가 장사된 거기서 부패하고 해체되어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그의 생애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 있다가 심판 때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요 7:9,10]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10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음부(스울) 곧 무덤에 묻힌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한다. 그가 살던 집도 어딘지 모른다. 그런데 사무엘의 혼령이 땅에서 올라왔겠는가?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결코 속지 않는다.

3. 죽은 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죽은 자는 산 자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 그렇다고 죽은 자의 세상에 가면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는 이미 존재자체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천년기 다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둘째 부활을 한다. 그때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상실하게 되는데 그때는 루시퍼와 그의 부하 천사들도 그렇게 된다.

지금 죽은 사람들 중에 의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악인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만 이 땅에서 이미 호흡이 끊어져서 매장, 화장, 수장 등등 장사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시 37:10]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이다.

[시 37:35,36]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36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욥 20:5~9]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6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7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8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9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욥 7:21]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흠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웁은 자기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찾아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찾으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말은 죽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려면 그를 부활시키면 되겠지만 일단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부활하기 전에는 없는 것이다.

웁은 사람이 죽으면 하늘이 없어지기 전에는 살아나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였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욥 14:12) 하늘이 없어진다는 말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벧후 3:10)

그런데 영혼불멸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를 만나려면 그 영혼을 불러 찾아 만날 수 있다고 믿는다.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이다.

루시퍼 사단은 자기와 또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죽은 자의 살아있는 영혼처럼 나타나서 그 사람의 생전의 모습을 재현하게 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모든 점치는 사람들, 길흉을 말하는 사람들, 곳을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루시퍼의 사역자들이다. 그들은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왜곡하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사단의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도 피를 흘리셨다. 그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무속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고생하는 사람들이다. 자기만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하는 일을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더욱 예수님의 빛으로 나오도록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 쉽지 않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 이상의 영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영혼불멸설은 반드시 영원지옥설을 동반한다. 이제 이 두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구절이라고 주장하는 성경구절들을 찾아보자.

4. 영혼불멸과 영원지옥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성경구절에 대하여

영혼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럴듯한 구절들을 나열하여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그런 성경구절들을 찾아서 그 본뜻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1.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눅 16:19~31]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20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21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5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26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비유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비유는 실제상황이 아니다. 어떤 사실을 알도록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이야기이다. 이 비유의 목적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의 축복에 대한 그릇된 사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신명기 28 장의 내용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게 적용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부자여야 한다. 부자가 못되는 것은 그들이 잘못 믿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산업도 빼앗기고 옥중에서 고통당하게 되지만 그것을 기쁘게 당한다고 했다.(히 10:32~34)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보면 신명기의 말씀이 종말론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앎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히 10:34,35)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영적 의미를 전혀 몰랐다. 예수께서 미래의 축복은 현재의 빈부 상태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비유에서는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음부 불꽃 속에 떨어졌다. 영원한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

둘째는 죽은 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비유에서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말을 통하여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다.

셋째는 구원의 기별은 오직 성경에서 얻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비유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전도하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비유에서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들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부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가는 자가 있으면 들을 것이라고 한다. 아브라함은 다시 말한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서 전해도 듣지 않는다고 한다.

이 비유를 하신 얼마 후에 죽은 지 나흘 만에 비유에 나오는 거지와 같은 이름을 가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렸는데 당국자들은 오히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였다.(요 12:10) 죽은 자가 살아가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드러났다.

구원의 기회는 이 세상에서 호홉하고 있을 동안이 유일한 기회이고 구원의 기별은 성경말씀에서 들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는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못한 것의 최종 상태를 드러낸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최종적으로 불 못에 들어가게 되고 불꽃 속에서 고통 중에 불타 없어진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비유적 표현을 주신 것이다.(갈 3:29)

부자가 음부 불꽃 중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최종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불 속에서 타서 재가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벧후 2:6)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다 게헨나의 불 못에 들어가서 타서 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태우는 불을 영원한 불이라고 한다.(유 7)

이렇게 재가 되어 존재 자체를 영원히 상실하기 때문에 자세히 찾아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이다.”(시 37:10)

기도인연합 미성경연구 연결망 안내

오늘 이 메일을 받은 분들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자신의 배움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여 차후 이웃에 전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인물이나 사건 중심으로, 또는 표면적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의 중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오직 믿으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 알거나 참된 깨달음없이 맹목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성경을 바르게 경험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 지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성경의 중심되는 내용을 산 경험과 함께 제시됨을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산 경험이라 함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화로 받아 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험에는 세상이 줄수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위한 성경연구 모임을 미(MEE) 성경 연구로 칭하는데 모세 (MOSES), 엘리야 (ELIJAH) 그리고 에녹(ENOC)의 영문 이름 첫 자를 딴 것입니다. 모세 엘리야 그리고 에녹은 살아 승천하였거나 죽어도 부활하여 지금 땅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현재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주 재림을 소망하며 마지막 시대 주어진 사명에 함께 진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잃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잠잘때 생명없는 상태를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잠이 들때 죽음과도 같은 무의식에 들어갑니다. 그 무의식속에는 선도 악도, 부와 빈도 아무런 차이도, 그것들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잃은 생명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잃은 생명에게는 온 세상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값으로 따질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상상의 한계를 넘습니다. 그런데 2 천년전의 예수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나 결국 그 생명을 가르치는 성경이 예수를 가르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영원한 생명은 예수에 대한 체험적 믿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적 믿음은 다가오는 그분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중단없이 지속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미성경연구 모임의 확산을 통해 함께 알리고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신앙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들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학문이 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학문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를 구하고, 또 무엇이냐 받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써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이행될 때에는, 허락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Ed 257.7)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 구하게 될 것이며, 계속적인 필요와 의뢰심이 생길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는 각각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나, 영적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히 교제하는 일이다. (Ed 258.3)

미 성경연구 내용

마지막 시대를 위한 성경과 예언의 신의 이해 및 간증을 포함한 말씀

미 성경연구 참여 방법

북미서부 지역모임:

미서부그룹-1: 2018 년 미서부 지역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 8 시 (미서부 시간)에 40 분 동안 진행되며 직접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컨퍼런스 번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12) 775-7035 / 액세스 코드: 889722#

미서부그룹-2: 미국인 기도회원 또는 영어가 가능한 분들을 위해 영어로 진행되는 모임이 매주 목요일 오후

8 시 (미서부 시간)에 50 분간 있으며 아래 번호를 사용합니다.

(818) 273-1108 (엑세스 코드 필요없음)

또한 해외에서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성경연구 모임 소식을 이메일을 통해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성함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성경연구: meebible@prayercoalition.com
문의 전화: 253-326-6451

그외 미 서부 그룹, 동부 그룹,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기타 지역 그룹 모임은 모임이 준비되는대로 추후 발표합니다.

미 성경연구 연결망 (MEE Network) 참여

정기적으로 미성경연구에 참여하는 단체 및 성경연구 그룹들이 함께 모여 연구발표 및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참여하기 원하는 그룹의 대표자는 위의 이메일 주소로 순서 날짜 및 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7 국제재림기도인연합 성회 말씀

마지막 사건들과 늦은비 (Final Events and the Latter Rain) 2 부

알렌 데이비스

The Seal of God

Revelation 7:1-8. The seal of God is given to those who have settled into the truth and have been tested and proved safe to save.

Those who receive the seal of the living God...must reflect the image of Jesus fully. {CET 112.2}

Not one of us will ever receive the seal of God while our characters have one spot or stain upon them. {5T 214.2}

It is at this time the wheat and the tares are separated from the first wave of saints ready to receive the Latter Rain and to give the Loud Cry. Now "the members of the church militant who have proved faithful [to the test] will become the church triumphant." —Letter 32, 1892. {Ev 707.1}

The Latter Rain

James 5:7; Acts 3:19. Here is where folk today are misunderstanding the sequence of events. The Latter Rain cannot fall until God has a people who have received the seal and been prepared to give the Loud Cry of the fourth angel—their characters have been perfected; they have gotten victory over sin. Remember, God will not seal that which hasn't been cleansed. No amount of praying at 7am and 7pm, seven days a week will bring in the Latter Rain until after the passing of the Sunday Law and the passing of the test by God's people.

Not one of us will ever receive the seal of God while our characters have one spot or stain upon them. It is left with us to remedy the defects in our characters, to cleanse the soul temple of every defilement. Then the latter rain will fall upon us as the early rain fell upon the disciples on the Day of Pentecost. {5T 214.2}

So what is the Latter Rain and what is it designed to do? Let's allow the Bible and the SoP to answer the question:

That I will give [you] the rain of your land in his due season, the first rain and the latter rain, that thou mayest gather in thy corn, and thy wine, and thine oil. (Deu 11:14 KJV)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was the former rain, but the latter rain will be more abundant. The Spirit awaits our demand and reception. Christ is again to be revealed in His fullness by the Holy Spirit's power. (COL 121)

The purpose of the Latter Rain is to empower God's people to give the third angel's message so that thousands will be gathered and converted by the message of the fourth angel that joins its voice with the third angel. Because of the voice of the fourth angel, the third angel's message "swells into the Loud Cry." But we cannot wait until this time to get ready!

Today you are to give yourselves to God, that he may make of you vessels unto honor, and meet for His service. Today you are to give yourself to God, that you may be emptied of self, emptied of envy, jealousy, evil-surmising, strife, everything that shall be dishonoring to God. Today you are to have your vessel purified that it may be ready for the heavenly dew, ready for the showers of the latter rain; for the latter rain will come, and the blessing of

God will purify every soul that is purified from every defilement. It is our work today to yield our souls to Christ, that we may be purified for the time of refreshing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purified for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1888 959.6} September 5, 1891

The Loud Cry

Revelation 18:1-4. Those commissioned to give the Loud Cry do so with glory. In other words, where before the message of the third angel was given by those still struggling with known and unknown sins, those who give the Loud Cry have gotten the victory—they are the light of the world as Jesus declares in Matthew 5:14-16.

Then I saw another mighty angel commissioned to descend to the earth, to unite his voice with the third angel, and give power and force to his message. Great power and glory were imparted to the angel, and as he descended, the earth was lightened with his glory. The light which attended this angel penetrated everywhere, as he cried mightily, with a strong voice, “Babylon the great is fallen, is fallen, and is become the habitation of devils, and the hold of every foul spirit, and a cage of every unclean and hateful bird.” The message of the fall of Babylon, as given by the second angel, is repeated, with the additional mention of the corruptions which have been entering the churches since 1844. The work of this angel comes in at the right time to join in the last great work of the third angel’s message as it swells to a loud cry. And the people of God are thus prepared to stand in the hour of temptation, which they are soon to meet. I saw a great light resting upon them, and they united to fearlessly proclaim the third angel’s message. {EW 277.1}

Now,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message of the Loud Cry is to be given even prior to the actual fall of the Latter Rain. Some might ask, didn’t the Latter Rain and Loud Cry begin after the 1888 message of RBF? Yes, it did—the most precious message of RBF was beginning to fan.

The time of test is just upon us, for the loud cry of the third angel has already begun in the revelation of the righteousness of Christ, the sin-pardoning Redeemer.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light of the

angel whose glory shall fill the whole earth. {1SM 362.4}

So what happened? Why are we talking about it today as a future event? Because the message didn’t take root. Thus, Sister White later wrote:

We may have to remain here in this world because of insubordination many more years, as did the children of Israel, but for Christ’s sake, His people should not add sin to sin by charging God with the consequence of their own wrong course of action. {10MR 277.3}

In addition, there is a pivotal part of the Loud Cry message for which God’s people are not prepared. Let’s again heed the words of God’s Messenger:

The health reform, I was shown, is a part of the third angel’s message, and is just as closely connected with it as are the arm and hand with the human body. I saw that we as a people must make an advance move in this great work. Ministers and people must act in concert. God’s people are not prepared for the loud cry of the third angel. They have a work to do for themselves which they should not leave for God to do for them. He has left this work for them to do. It is an individual work; one cannot do it for another. “Having therefore these promises, dearly beloved, let us cleanse ourselves from all filthiness of the flesh and spirit, perfecting holiness in the fear of God.” [2 Cor 7:1] Gluttony is the prevailing sin of this age. Lustful appetite makes slaves of men and women, and beclouds their intellects and stupefies their moral sensibilities to such a degree that the sacred, elevated truths of God’s word are not appreciated. The lower propensities have ruled men and women. {CD 32.2}

In order to be purified for translation, the people of God must know themselves. They must understand in regard to their own physical frames, that they may be able with the psalmist to exclaim, “I will praise Thee,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They should ever have the appetite in subjection to the moral and intellectual organs. The body should be servant to the mind, and not the mind to the body.—Testimonies for the Church 1:486, 487, 1867 {CD 33.1}

So, we are indeed to give the three angels’ messages, but the cry of the fourth angel will not manifest itself until the people of God get victory over sin—which includes appetite—so that they

might reveal the glory of the LORD. As it is written: "But [as] truly [as] I live, all the earth shall be filled with the glory of the LORD" (Num 14:21, KJV).

The last message of warning to the world is to lead men to see the importance that God attaches to His law. So plainly is the truth to be presented that no transgressor, hearing it, shall be excusable in failing to discern the importance of obedience to God's commands. {Ev 225.3}

This message will continue until the general close of probation, just prior to the falling of God's final judgments (i.e., the plagues). Those who have never heard this message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ccept or reject it. But those of us who have been in this message and called to be light bearers of the truth, should we fail to pass the test, will receive the mark of the beast.

Oh, that the people might know the time of their visitation! There are many who have not yet heard the testing truth for this time. There are many with whom the Spirit of God is striving. The time of God's destructive judgments is the time of mercy for those who have had no opportunity to learn what is truth. Tenderly will the Lord look upon them. His heart of mercy is touched; His hand is still stretched out to save, while the door is closed to those who would not enter. {9T 97.2}

Close of Probation

The Scripture tells us in Revelation 22:11, "He that is unjust, let him be unjust still: and he which is filthy, let him be filthy still: and he that is righteous, let him be righteous still: and he that is holy, let him be holy still" (KJV).

A more expanded passage is given in Proverbs 1:24-33:

24 Because I have called, and ye refused; I have stretched out my hand, and no man regarded; 25 But ye have set at nought all my counsel, and would none of my reproof: 26 I also will laugh at your calamity; I will mock when your fear cometh; 27 When your fear cometh as desolation, and your destruction cometh as a whirlwind; when distress and anguish cometh upon you. 28 Then shall they call upon me, but I will not answer; they shall seek me early, but they shall not find me: 29 For that they hated knowledge, and did not choose the fear of the LORD: 30 They would none of my counsel:

they despised all my reproof. 31 Therefore shall they eat of the fruit of their own way, and be filled with their own devices. 32 For the turning away of the simple shall slay them, and the prosperity of fools shall destroy them. 33 But whoso hearkeneth unto me shall dwell safely, and shall be quiet from fear of evil" (vss. 24-33).

Sister White wrote the following. Look how clearly she depicts what has to be completed before the close of probation.

As Jesus moved out of the most holy place, I heard the tinkling of the bells upon His garment; and as He left, a cloud of darkness covered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There was then no mediator between guilty man and an offended God. While Jesus had been standing between God and guilty man, a restraint was upon the people; but when He stepped out from between man and the Father, the restraint was removed and Satan had entire control of the finally impenitent. It was impossible for the plagues to be poured out while Jesus officiated in the sanctuary; but as His work there is finished, and His intercession closes, there is nothing to stay the wrath of God, and it breaks with fury upon the shelterless head of the guilty sinner, who has slighted salvation and hated reproof. In that fearful time, after the close of Jesus' mediation, the saints were living in the sight of a holy God without an intercessor. Every case was decided, every jewel numbered. Jesus tarried a moment in the outer apartment of the heavenly sanctuary, and the sins which had been confessed while He was in the most holy place were placed upon Satan, the originator of sin, who must suffer their punishment. {EW 280.2}

At this point, every case will be decided—the work of the third angel will be complete and the Harvest will be ripe. After the close of probation, the plagues will fall; yet during this time, God's people will be sheltered—though tested and tried during what's called Jacob's time of trouble (see GC Ch. 39)—just as Noah and his family were sheltered in the ark for seven days from the wicked. During this time, they will earnestly pray and seek to ensure every spot and stain is gone—and it will be...there will be nothing left to confess. At the end of the plagues, Jesus will return and they will be translated as the wicked are taken away and destroyed (see Genesis 6 and 7, and Matthew 24).

The Second Coming

After the struggle of the Great Tribulation and being brought face to face with death by those who have taken the side of the Enemy of Souls, God's people are then rescued by an air armada of unprecedented proportions!

And I looked, and behold a white cloud, and upon the cloud [one] sat like unto the Son of man, having on his head a golden crown, and in his hand a sharp sickle. And another angel came out of the temple, crying with a loud voice to him that sat on the cloud, Thrust in thy sickle, and reap: for the time is come for thee to reap; for the harvest of the earth is ripe. (Rev 14:14-15 KJV)

This is the Harvest of the righteous, and the gathering of the wicked is not left without comment: And another angel came out of the temple which is in heaven, he also having a sharp sickle. And another angel came out from the altar, which had power over fire; and cried with a loud cry to him that had the sharp sickle, saying, Thrust in thy sharp sickle, and gather the clusters of the vine of the earth; for her grapes are fully ripe. And the angel thrust in his sickle into the earth, and gathered the vine of the earth, and cast [it] into the great winepress of the wrath of God. (Rev 14:17-19 KJV)

Here we have the harvest of the wicked, but they are not gathered into barns; rather, they are crushed by the Rock made without hands. Both occur at the Second Coming of Christ. As we move forward in this journey of perfecting holiness, let us keep the following passage in mind:

Satan will work his miracles to deceive; he will set up his power as supreme. The church may appear as about to fall, but it does not fall. It remains, while the sinners in Zion will be sifted out—the chaff separated from the precious wheat. This is a terrible ordeal, but nevertheless it must take place. None but those who have been overcoming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the word of their testimony will be found with the loyal and true, without spot or stain of sin, without guile in their mouths. We must be divested of our self-righteousness and arrayed in the righteousness of Christ. {2SM 380.2}

We will then be ready—should we be blessed to be one of those who will go through the Great Time of

Trouble—to see Jesus coming in the clouds of heaven. Those who do will exclaim:

Lo, this is our God; we have waited for him, and he will save us: this is the LORD; we have waited for him, we will be glad and rejoice in his salvation. (Isa 25:9, KJV)

재림기도인연합 회보

기도인연합 회보는 각 교회의 기도모임 소식을 전하며 재림교회 성도들의 연합기도를 권장하는 단체인 기도인연합의 공식회보입니다. 새로 이메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름과 전화번호 소속교회 및 간단한 소개를 하여 admin@prayercoalition.com (제목: subscribe)으로 보내시면 메일리스트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언제나라도 이메일 받기를 원치 않을경우 제목: unsubscribe 로 하여 보내시면 메일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이 회보 내용에 관한 의견 또는 문의는 editor@prayercoalition.com 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인연합/ 연합기도운동 안내

우리들과 교회의 영적 각성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관계 회복이 시급함을 자각하며 2007년 8월 9일 시작된 연합기도운동이 2007년 8월 26일 2차 모임을 시작으로 미주와 해외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간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 5:17, 단 10:12) 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때 우리의 교회일은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의 봉사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고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연합기도운동에 교회에서 단체로 또는 개인으로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미서부: 253-326-6451 • 626-665-8445 / 동부: 440-600-1857 • 336-340-9274 / 한국: 033-763-1054
/ 일본: 03-5604-5125 / E-mail: info@prayercoalition.com



TEL: 619-758-4006 • FAX: 858-909-8214
Prayer Coalition P. O. Box 1216, Delano, CA 93216-1216
Email: admin@prayercoalition.com Web: prayercoalition.com